

‘호남 민심 풍향계’ 민주당-평화당 사활 건 혈전 예고



정국 향배 가를 국회의원 재보선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다음달 13일 또 다른 전국 규모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미·북미 정상회담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쏠쏠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지만 대상 지역이 12곳에 이르면서 ‘미니 총선’이라고 불릴 만큼 정치적 의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이 두 자릿수 이상의 곳에서 치러지는 것은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 할 때 2014년 상반기 15곳, 2002년 상반기 13곳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현재까지는 더

광주 서구갑 ‘민주화운동’ 송갑석 대 ‘국회 전문가’ 김명진 86세대 대결

영암·무안·신안은 ‘정치 라이벌’ 서삼석과 이윤석의 세 번째 리턴 매치

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의 고공 행진에 힘입어 정국을 주도하고 있어 선거에서도 유리한 국면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의 의석 차가 다섯 석에 불과해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보선이 박빙 양상인 원내 판도를 결정짓는 정국의 중대 분수령인 셈이다. 또한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엿보는 풍향계가 될 수도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주 서구갑과 영암·무안·신안 등 두 곳에서 재선거가 치러지지만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에겐 승패의 함의가 무겁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6명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4명, 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민주당 4명, 바른미래당 3명으로 민주당은

한 명도 없다. 따라서 집권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총선에서 ‘녹색 돌풍’으로 빼앗긴 지역구 탈환을 위해 ‘광주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절실한 과제다. 국민의당에서 분화한 민주평화당은 수성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갑은 학생 운동권 출신과 국회 전문가인 86세대 간 대결로 눈길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송갑석(51) 노무현재단 광주 운영위원과 민주평화당 후보인 김명진(54) 전 김대중 대통령 정외대 행정관이 그들이다. 기독교 한진배(67) 후보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현재까지 판세는 송·김 후보 간 2파전 구도로 흐르고 있다.

송 후보는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지방대 최초로 전대협 제4기 의장을 맡아 학생 운동을 주도하다 5년간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지만 다른 운동권 리더에 비해 정치 운이 따르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 도전은 16대와 19대, 20대 총선에 이어 네 번째다.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전

국에 알리는 (사)광주학교 교장과 한국공공데이터센터 소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광주를 광주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보편적 복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지방분권 강화를 내걸고 “광주 유일의 여당 국회의원 배출돼 문재인 정부와 호남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DJ 정부 이후 22년간 여야 정당과 대통령직 인수위, 청와대, 국회, 공기업 등에서 활동하며 국정 전반을 경험했다. 민주당과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을 거치며 당 대표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만 6차례 역임해 ‘국회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호남 민생 쟁기는 광주의 대변인’을 슬로건으로 상무소속장 부지에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 광주 군공항 이전 신속 추진, 중앙공원의 국가 도시공원 조성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일당 독주는 필연적으로 오만과 독선을 부른다”며 “서구에서부터 민주평화당 승리의 녹색 대풍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영암·무안·신안은 민주당 후보인 서삼석(58) 전 무안 군수와 민주평화당 후보인 이윤석(57) 전 국회의원의 간의 리턴 매치로 압축된다. 고향(무안)

과 연령대, 정치 역경까지 비슷한 이들은 이미 두 차례나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다.

2012년 총선 민주통합당 경선에서는 이 후보가 274표 차이로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6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서 후보가 설욕했다.

서 후보는 재선 전남도위원을 지내고 무안 군수에 도전해 내리 3선을 한 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농어업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확보, 무안공항 활성화,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을 약속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맡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3선 전남도위원과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는 “호남을 대변할 정당은 민주평화당 밖에 없다”며 농어민 연금 입법화와 영암의 산업 특별지구 지정, 무안 해양 관광 일주도로 및 신안 연도·연륙교 조기 완공 등을 내걸고 표발을 다지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처럼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사활을 건 혈전이 예상된다. 선거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 당의 지도부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선거 때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 온 지역 유권자들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정현복-김재무 리턴매치 관심

〈무소속〉

〈민주당〉

■ 광양시장 후보

정당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이름(나이)	정현복(68)	김재무(58)	김현옥(73)	이옥재(63)
주요경력	광양시장	전 전남도의회 의장	전 김대중후보 광양선대위원장	국가정책연구소장
주요공약	·호남 최대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중마□금호권역 해변공원 조성 ·섬진강권역 뱃길 복원 ·인서·덕례·도이지구 개발 ·청년창업공간□청년점포 조성	·국내 유일 스타에니랜드 건립 ·4차산업 창업센터 설립 ·광양보건대 정상화 추진 ·도립노인전문병원 유치 ·노후생활보장 ‘지자체 연금’ 도입	·교육문화재단 설립 ·백운산에 화강품 제조공장 조성 ·노동환경 개선 위원회 설치 ·좋은일꾼 만들기 운동센터 설립 ·목질계 화력발전소 지지	·동서대통합 경전특별도 건설 추진 ·200만대 생산 자동차 공장 건립 ·랜드마크 888m 세계 제1탑 건설 ·경비행기 제조·관광산업 육성 ·백운산·섬진강 관광자원화

바른미래당 김현옥, 무소속 이옥재 후보 등 4파전 섬진강권 뱃길 복원·세풍 화학클러스터 공약 발표

■ 광양시장

광양시장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무소속 정현복(68)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재무(58) 후보, 바른미래당 김현옥(73) 후보, 무소속 이옥재(63) 예비후보 등 4파전이다. 이 가운데 정현복 시장과 김재무 전 전남도의회 의장의 리턴매치가 관심사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 시장은 현재 프리미엄을 앞세워 재선을 자신하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15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현재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늦췄다.

그는 밑바닥을 훑는 스타일답게 소통행정이 강점이다. 또 예산 1조원시대 개막, 부채 전액 조기 상환 등의 성과를 냈다.

정 후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광양을 찾는 관광객도 넘치며, 산단에는 미래산업시설이 들어서고, 상인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는 광양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호남 최대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중마·금호권역 해변공원 조성, 섬진강권역 뱃길 복원 및 마리나항 조성, 인서·덕례·도이지구 개

발, 세풍·울촌·대근·하포산단 개발해 최첨단산업 유치, 15만 시민의 눈높이 맞춘 소통행정 등을 공약했다. 또 청년 정책으로 청년수당 지급, 구직청년 교통카드 지급, 구직청년 무상 건강검진, 청년 행복주택 건립, 청년창업공간(디지털대장간) 조성, 청년점포(청년몰) 개발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김재무 후보는 일찌감치 단수 추천돼 선거판을 끌어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 후보는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민주당의 경륜있는 후보라는 점이 강점이다. 그도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광양의 문제는 포스코 중심의 산업구조와 부족한 관광 인프라”라며 “단순한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풍 화학클러스터를 조성해 신소재 단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양발전 7대 공약으로 ▲시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인 안전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구조 다변화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벨트 조성 ▲청의교육 강화로 미래세대 육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실현 ▲시민 참여 권익행정, 신명나는 공직 문화 ▲미래를 선도할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내 유일 스타에니랜드 건립, 4차산업 창업센터 설립, 미래교육 인터넷 무료방송 추진, 도립노인전문병원 유치, 노후생활보장 ‘지자체 연금’ 도입, 시민권익위원회 신설, 매실산업 R&D연구소 설치 등으로 공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특히 핵심공약으로 광양보건대 정상화 추진을 들고 나왔다. 전남도와 광양시 공동으로 광양보건대 정상화 추진 재단법인을 설립해 재정을 투입, 공립형 사립대로 전환해 정상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른미래당 김현옥 후보는 9전10기의 공직선거 출마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며 “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선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문화·역사를 토대로 한 도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격적인 외자 유치로 백운산 기슭에 화강품 제조공장 조성, 노동환경 개선

위원회 설치, 좋은일꾼 만들기 운동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그는 “황금산단에 건설 예정인 목질계 화력발전소를 반대한다”며 “시장이 되면 시장직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옥재 후보는 국가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책연구가다. 이 후보는 “광양은 백운산이 자리 잡고 있고, 섬진강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고, 바다와 섬 등 자연환경이 빼어나다”며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을 세계 수준급으로 끌어올려 광양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라도 5개 시·군, 경상도 5개 시·군을 합한 동서대통합 경전특별도 건설 추진, 광양제철소 연계 연간 200만대 생산 자동차 공장 건립, 광양시 랜드마크 888m 세계 제1탑 건설, 경비행기 제조 및 경비행기 관광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제1선거구 3파전…세 후보 모두 매산고 동문

■ 전남도의원(광양)

광양지역 전남도 의원은 3명을 선출한다. 제1선거구(광양·봉강·옥동면)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재(55) 후보, 민주평화당 남기호(60) 후보, 무소속 이기연(56) 예비후보가 3파전을 펼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매산고 동문이다. 당초 민주당 이 후보의 3선 가도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평화당 남 후보가 광양시장 도전을 접고 도 의원으로 유턴하면서 선거구도가 복잡해졌다. 여기에 무소속 이 후보마저 민주당 경선에 불만을 품고 탈당,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제2선거구(중마동)에서는 현재 민주당 김태균(54) 후보가 홀로 뛰고 있다. 광양시상공인협의회회장과 광양시야구협회장을

■ 광양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이용재(55·민·전 전남도의원) 남기호(60·평·전 광양시의회 의장) 이기연(56·무·전 광양시의원)
제2선거구	김태균(54·민·전 전남도의원)
제3선거구	김길용(41·민·전 우원회의원 비서) 정현완(64·평·전 광양시의원)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무=무소속

지내는 등 사회활동이 활발하다. 이번이 전남도의원 재선 도전이다.

제3선거구(옥곡·진상·진월·다압·골약·광영·태인·금호동)는 민주당 김길용(41) 후보와 평화당 정현완(64) 후보가 맞붙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전남쌀 공동브랜드

풍광수로

새롭게 태어난 풍광수토가 고객님의 곁으로 다가옵니다.